

1월 28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월 28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 지표 악재 딛고 이틀째 상승 [다우: 8,174.73pt (+ 0.72%)	27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경제지표 악재를 딛고 상승세로 마침. 주요 지수는 1%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 이날 뉴욕 증시는 개장 초 경제지표 악재를 만나 잠시 하락권으로 떨어지기도 했으나 기대를 웃돈 실적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내 반등.
아멕스 등 금융주·TI `상승`	아멕스를 비롯한 금융주가 올라 지수 상승을 주도. 아멕스(AXP)는 9.7%, 씨티그룹(C)과 뱅크오브아메리카(BAC)도 각각 6.6%, 8.3% 급등. 아멕스는 전날 장 마감 후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1억7200만달러(주당 15센트)로 전년동기대비 79% 급감했다고 밝힘. 그러나 이는 월가 전망은 웃돈 수준.
20개 대도시 집값 사상 최대 하락	월가가 가장 신뢰하는 주택가격 지표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케이스-윌러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20대 대도시의 11월 주택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8.2% 급락. 이는 지난 2001년 이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최대 하락폭.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18.4%에는 소폭 못미치는 낙폭.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와 경기후퇴(recession) 여파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
1월 소비심리 `사상최악`	민간 연구기관인 컨퍼런스보드는 1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전월의 38.6(수정치)에서 37.7로 하락했다고 밝힘. 이는 지수가 산정되기 시작한 지난 1967년 이후 최저치. 실업률이 치솟고, 주택가격의 추락이 거듭되면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심리가 가파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버락 오바마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소비 심리를 개선시키지는 못함.
유가 9% 폭락..`지표악화→수요위축 우려↑` [WTI: \$41.58 (-\$4.15)	국제 유가가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로 폭락.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3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4.15달러(9.1%) 떨어진 41.58달러로 마침. 이는 지난 7일 이후 3주만에 최대 낙폭.
英, 23억파운드 자동차 산업 지원책 발표	영국 정부는 27일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고전 중인 자동차 생산업체와 부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3억파운드에 달하는 자동차 산업 지원책을 발표. 피터 만델슨 장관은 이날 상원에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투자은행으로부터 최대 13억파운드의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고, 친환경 차량에 대한 투자 자금을 도와주기 위해 추가로 10억파운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제목	주요 내용
英, 23억파운드 자동차 산업 지원책 발표	영국 정부는 27일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고전 중인 자동차 생산업체와 부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3억파운드에 달하는 자동차 산업 지원책을 발표. 피터 만델슨 장관은 이날 상원에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투자은행으로부터 최대 13억파운드의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고, 친환경 차량에 대한 투자 자금을 도와주기 위해 추가로 10억파운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에 디즈니랜드 들어선다	중국 상하이에 디즈니랜드가 이르면 2014년 개장될 전망이다. 미국 월트디즈니와 상하이시는 홍콩 디즈니랜드보다 큰 150헥타르(ha) 규모의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中, 20년간 판 복지권 68조원 달해	중국의 복지복권 판매액이 지난 20년간 통틀어 3,364억위안(약 68조원)에 달했으며 이를 통해 1,125억위안(약 23조원)의 공공복지기금을 조성했다고 중국 복지복권관리센터가 27일 밝혔다. 이 기금은 사회복지시설 건립 및 보수, 고아·노인·장애우들을 위한 교육·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위해 사용될 것.
외환손실 때문에..`대기업 실적도 직격탄	지난 22일 실적을 공개한 SK에너지는 지난해 매출 45조7,459억원, 영업이익 1조9,334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각각 65%, 31% 증가. 하지만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39%, 26% 줄어든 9,920억원과 9,070억원을 기록.
우려했던 4분기 실적 뚜껑 열어보니	주요국가들의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매우 부진한 점 또한 경기하강을 그대로 반영. 4분기 국내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5.6%, 전년 동기대비 3.4% 감소했음. 전분기대비 성장률은 지난 1998년 -7.8%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특히 IT대형주들의 부진이 두드러짐.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둔화와 함께 미끄러지는 제품가격, 경쟁치열 등 험난했던 4분기가 그대로 실적에 나타났음.
금리하락 불구 유동성 장세 시기상조"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책금리도 하락하는 전형적인 `역실적 장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역실적 장세` 이후에는 `유동성 장세`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그러나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대거 이동해 랠리로 보이기에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